종교,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

(사무엘상 10:17~27)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 그들이 달려 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종교,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종교,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
본문을 읽으며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뒤끝 작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뒤끝을 표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왕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허락하셨는데, 못마땅해 하신 이유는 이러한 요청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면 선민 됨도 끝나는 것인데도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못마땅했을지라도 일단 결정되었으면 과거는 잊고 가능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을 뽑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 선지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지파별로 나오고 집안별로 나오게 하셔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즉부터 해야 될 질문이 있었는데, 사람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뒤끝을 보이시면서도 허락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왕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것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그들이 요구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현장은 나의 현실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이삭이나 사라가 앞에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는데 현실감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현실로부터 이삭이나 사라에 대한 말과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실은 내 마음에서 1등으로 등장하는 존재이고, 또한 왕처럼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하는 왕 같은 1등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버려지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감옥에 갇히시게 하는 것은 선민들의 현실감에서 버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왕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활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중앙 성소가 있고 곳곳마다 성소와 제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을 중앙 성소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종교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은 왕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왕을 바란 것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는 것처럼 삶의 상황은 왕과 함께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중앙 성소에서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을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 말이 선민들의 귀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은 중앙 성소에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삶은 현실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실감각에서 버려지시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현실감각으로 버려져서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어 버리실 때에 하나님은 쫓겨나신 것입니다. 중앙 성소나 요즘의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현실감으로 하나님을 되찾고 그 현실감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현실감으로 갖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현실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앙 성소나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현실참여"라는 말을 합니다. 진보적 성향을 띄는 교단들은 현실참여나 사회참여를 앞장서서 주장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상황과 제도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뜯어 고치는 것을 '현실참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잘못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실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현실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참여의 문제는 마음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제도에 대해 마음이 붙게 되고, 성경 말씀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 사회제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든 잘됐든 사회제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참여나 사회참여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제도에 마음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현실로 삼을 때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Credo)"라고 하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단어인 라틴어 '코르(cor)'와 '드린다.'고 하는 동사 '다레(dare)'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나는 믿는다.'는 말은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왕처

럼 빛나서 1등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고백인데 왕처럼 빛나며 1등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믿음은 언제나 현실감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현실감을 따로 가지며 그 뒤에 내가 믿음을 따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것이 현실감이고, 내 마음의 시선이 몰입되는 대상이 나의 현실이며 나는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사회제도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사회제도가 바뀌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내가 자식에게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선민이 하나님을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현실로 삼는 이유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감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느냐 갖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활동의 대상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현실감은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주도해가는 삶의 현장을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종교라는 영역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도하십니다.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의 현실감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현실이어야 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현실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실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중앙 성소에 갇히셨고 선민에게 버려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현실은 재정형편, 건강 상황, 직장, 가정, 사업 등의 삶의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삶의 현장에서 빌 게이츠나 이재용 씨나 스티브 잡스같이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버려 삶에서 쫓아내고 중앙 성소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민이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것을 소원하셨지만 선민들의 깨닫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왕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현실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종교라는 감옥에 가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선민들이 만든 종교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시는 궁여지책으로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현실이실 때에 그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자식 앞에서 자식보다 하나님이 왕처럼 빛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현실이 되실 때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관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두고 현실감에서 잃은 뒤에야 찾는 것은, 이미 세

상 것으로 이루어진 현실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현실감을 이룬 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라는 감옥에 갇혀계시거나 나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장의 상황이 내 마음에 왕처럼 빛나 사로잡는 현실이 되려고 할 때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는 것입니다. 사업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셔야 하는 노예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셔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종교는 이미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라는 말을 자꾸 받아들이는데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참여 식의 오해를 가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 속에서 이미 믿음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 나의 현실이 되셔야 하고 그래야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하고 중앙 성소의 번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상태를 이루어서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의 현실이고 애인을 만날 때에도 애인보다 먼저 하나님이 현실임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왕정을 허락하시며 감옥으로 부터 탈출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못마땅해 하시고 뒤끝을 보이시면서도 허락하신 왕정체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